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5년 7월 7일

감 수 이연경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장

발 행 인 조정희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19

주요 해운지표

21

건화물선

지난주 케이프선 운임은 23.9% 하락한 16,303달러/일을 기록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98p 하락한 1,763p를 기록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6.6p 하락한 47.4p를 기록

황수진 해운산업연구실장 / zin@kmi.re.kr | 051-797-4635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34

최영재 연구원 / cyj@kmi.re.kr | 051-797-4608



1. 주간뉴스

MSC, 서아프리카 환적 허브 확대 통해 유럽 항만 의존도 낮춰

- ▶ MSC는 24,000TEU급 초대형선을 아프리카 노선에 투입하며, 로메(Lomé)·테마(Tema)·아비장(Abidjan) 등 서아프리카 항만을 중심으로 환적 허브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북유럽 항만 혼잡과 EU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특히 로메와 아비장은 최근 몇 년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며 MSC의 신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MSC는 볼로레 아프리카 로지스틱스(Bolloré Africa Logistics)를 인수해 아프리카 내 물류 기반을 강화했으며, 타 선사보다 동 지역에서 더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 중임
- ▶ 서아프리카는 홍해를 우회하는 희망봉 항로의 활용 증가와 함께 환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항만 인프라도 도로 개선과 함께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음
 - DP World는 세네갈 은디아네(Ndayane) 항만에 12억 달러를 투입해 신항만을 건설 중이며, 완공시 다카르(Dakar)항의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환적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향후 홍해 항로가 정상화되더라도, 서아프리카 항만이 충분한 환적 실적을 확보한다면 독자적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여유 선복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자료: <https://www.joc.com/article/growth-in-west-african-ports-opens-new-transshipment-options-for-msc-6036859>

김병주 전문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컨테이너선 화재, 주요 해양위험 요인은 화물 허위신고

- ▶ 2005년 이후 컨테이너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126건으로 집계되며, 선원 15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당했지만 다른 해양사고 원인들이 감소한 것과 달리 화재 발생 빈도는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Maersk Honam 화재로 5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Maersk Frankfurt에서도 폭발로 인해 선원 1명이 사망하며 4일간 화재가 지속된 사례 등 최근에도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음
 - 사고 발생 시 일부 선원들이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선원들이 화물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책임 부과는 부당하다고 비판함
- ▶ 최근 선박 화재의 주요 원인은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위험화물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이들 화물이 화재 확산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일부 선사들은 전기차 위험도를 우려해 선적을 거부하거나, 배터리를 분리해 별도 갑판에 보관하고 있으며, WSC는 AI 기반 판독 시스템을 통해 위험 컨테이너를 선별하려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임
 - WSC는 위험화물 비용을 회피하려는 부도덕한 선적이 핵심 문제라며, 규제는 존재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자료: <https://www.loydslist.com/LL1154089/Container-fires-remain-one-of-the-most-significant-hazards-for-boxships-as-incidents-mount>

김병주 전문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케이프선 시장, 기니 시만두 철광석 광산 가동 시작으로 회복 기대감 확산

- ▶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TradeWinds)는 기니의 시만두(Simandou) 철광석 광산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뉴캐슬맥스 및 대형 케이프선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케이프선 및 뉴캐슬맥스선 시장 점유율의 16%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산 보크사이트와 함께, 기니 시만두 철광석은 아시아로 향하는 장거리 항로를 형성하여 운임 상승에 긍정적인 것이라 평가함
 - 그리고 수주 잔량과 인도 예정 선박이 부족한 가운데 기니 시만두 철광석이 수요를 자극하여 운임 상승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선박 매수와 보유 수요가 동반 증가해 선박 매매가 사실상 멈췄다고 보도함
- ▶ 중국의 철광석 수요 구조가 자국산 저품위 철광석보다 수입산 고품위 철광석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철강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브라질산 철광석 수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음
 - 중국은 2022년 이후 자국산 저품위 철광석 가격이 100 달러/톤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비용 구조로 인해 고품위 철광석 수입 수요가 이어져 기니 시만두 등에 대한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침
 - 2030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인도 또한 브라질산 철광석 수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트레이드윈즈는 이에 대해 케이프선 시장의 수요 창출 측면에서 인도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bulkers/newcastlemax-bulkers-in-demand-as-simandou-gives-the-market-an-extra-long-haul-leg-to-stand-on/2-1-1834210>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파나막스선 시장, 미국산 곡물 수출 호조로 수요 강세

- ▶ 발틱국제해사협회(BIMCO)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미국의 곡물 수출량은 주로 옥수수 수출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하였으나, 지난 3월 중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약 57% 감소함
 - 해운시장분석기관 시그널 오션(Signal Ocean)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미국산 곡물의 일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콜롬비아 수출은 21% 증가해 안정적인 수출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해운 전문지 로이즈 리스트(Lloyd's list)는 미국산 곡물의 수출 증가국 대부분이 미국 인근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으며, 발틱국제해사협회는 톤마일 수요는 전년 대비 약 7% 감소했다고 언급함
- ▶ 시그널 오션에 따르면 미국산 곡물의 약 40%는 파나막스선, 약 34.5%는 수프라막스선을 통해 운송되었으며, 로이즈 리스트는 파나막스선 시장이 5월 말~6월 초부터 반등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세계 최대의 파나막스선 운영 선사인 토르발드 클라베네스(Torvald Klaveness)는 최근 상승세가 동호주 항만 혼잡에 따른 태평양 시장의 공급 제약과 미국산 곡물의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함
 - 토르발드 클라베네스 측은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면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해당 시기에 예외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으며 점차 서서히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망함

자료: <https://www.lloydslist.com/LL1154091/US-grain-shipments-up-9-in-first-half-of-2025>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1. 주간뉴스

중국, 7월 제품유 수출 증가 전망

- ▶ 에너지시장분석기관 플랫츠(Platts)에 따르면, 이란-이스라엘 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수출 마진이 개선되어 중국은 7월 제품유 수출 확대를 준비 중이며, 특히 경유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중국의 7월 제품유 수출은 전월 대비 약 9% 증가한 388만 톤으로 전망되며, 경유는 전월 대비 약 88% 증가한 약 64만 톤, 휘발유는 17% 증가한 76만 톤, 항공유는 4% 감소한 248만 톤으로 예상됨
 - 중국의 제품유 수출 확대는 정유업계의 정기 정비 시즌 종료 이후인 7월에는 일반적으로 원유 처리량이 증가하고, 수확기 종료 이후 안정된 내수 수요에 따른 여유 물량 증가로 인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 2025년 5월 기준, 중국산 경유 수출의 64%가 필리핀으로 향했으며 휘발유 수출은 멕시코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경유 부문의 핵심 수출처는 필리핀, 휘발유 부문은 멕시코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의 2025년 5월 중국산 경유 수입량은 약 32만 2,000톤으로 중국 전체 경유 수출량의 약 64%를 차지하며, 1~5월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109만 톤, 비중은 11%p 상승한 44%임
 - 2025년 5월 기준 중국이 멕시코에 수출한 휘발유는 전월 대비 약 48% 증가한 10만 5,300톤으로, 이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중단된 양국 간 휘발유 무역이 재개되며 회복된 결과임

자료: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refined-products/062725-china-data-july-gasoil-exports-seen-soaring-88-mom-on-better-margins>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미국, 이란산 석유 유통 차단을 위한 유조선 등 추가 제재 발표

- ▶ 미국은 지난 6월 말 이스라엘-이란 전쟁 중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처음으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제재를 재가하며 유조선 12척과 이라크 석유 터미널 등을 새로운 제재 대상을 지정하였음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0년부터 이란산 석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 판매한 이라크 및 영국 국적의 살림 아흐메드 사이드(Salim Ahmed Said)와 소유 회사가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음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살림 아흐메드 사이드가 보유한 이라크 VS 석유 터미널에서 이란산 석유를 이라크산과 혼합하여 문서 위조를 통해 이라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서방으로 유통된다고 밝힘
-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국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 군(Quds Force)의 원유 판매와 관련해 이란산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을 운송한 유조선과 가스선 11척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다수의 선박이 수천만 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을 운송하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에 관여했고, 일부 선박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음
 - 미 국무부는 인도 선박관리업체가 미국의 제재 기업을 대신해 이란산 LPG를 운송한 혐의로 관련 선박 및 업체를 추가 제재했으며, 관련 선박들은 11차례 이상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자료: <https://www.lloydslist.com/LL1154098/US-designates-12-tankers-and-Iraqi-terminal-in-first-Iran-sanctions-since-bombing-nuclear-sites>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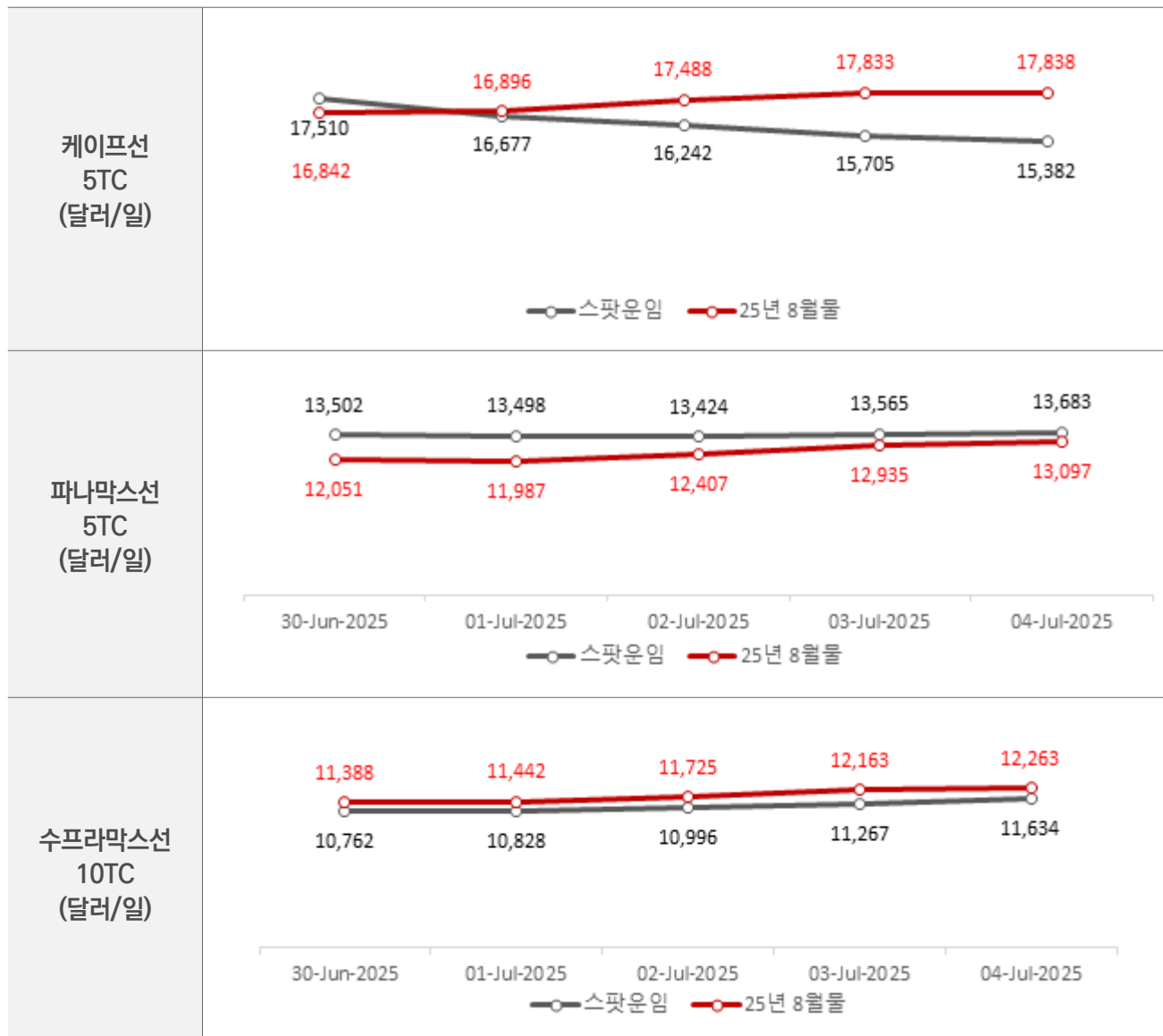
황수진 부연구위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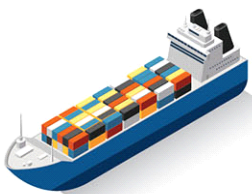
구분	7월 1주							
	주간평균운임	전주 대비 차이			7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6,303	▼	-5,132	-23.9 %	17,379	▼	-1,005	-5.5 %
파나막스선 5TC (달러/일)	13,534	▲	703	5.5 %	12,495	▲	134	1.1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11,097	▲	581	5.5 %	11,796	▲	754	6.8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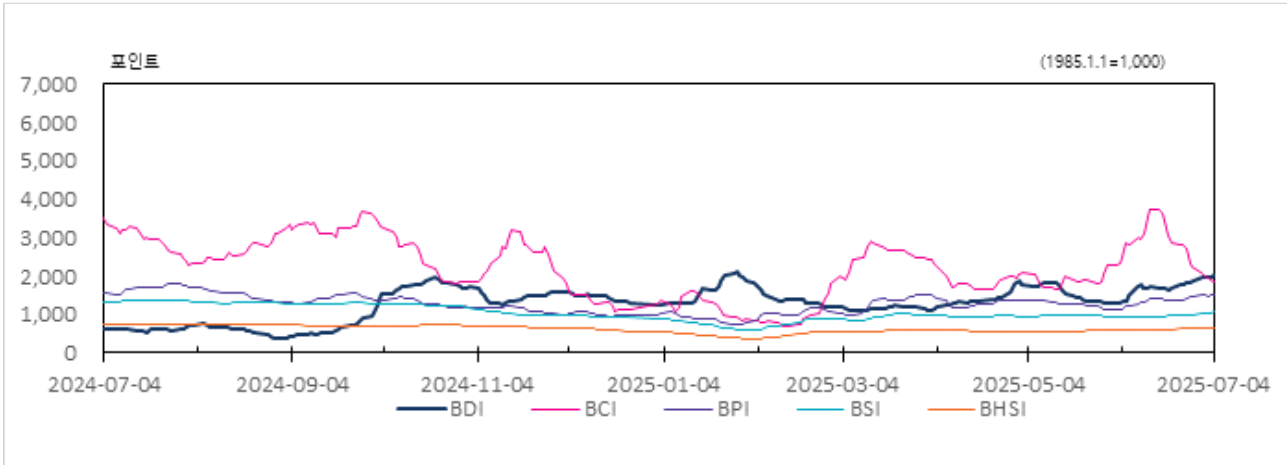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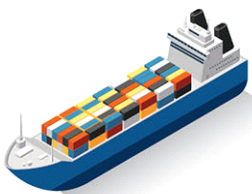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7월 1주	전주 대비	2024년			2023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선형별 운임	운임지수 BDI	1,452	▼ -167	976	2,419	1,755	530	3,346	1,378
	케이프(5TC)	16,303	▼ -5,132	8,945	35,780	22,593	2,246	21,814	11,848
	파나마스(5TC)	13,534	▲ 703	8,616	20,757	14,099	7,277	16,669	12,276
	수프라막스(10TC)	11,097	▲ 581	9,637	16,441	13,601	6,874	14,703	10,928
	핸디(7TC)	11,389	▲ 6	10,197	14,537	12,660	7,763	12,703	10,317
1년 용선료	케이프	21,700	▲ 2,950	18,800	32,000	24,750	13,750	25,125	17,161
	파나마스	13,500	▲ 275	12,000	19,575	16,554	12,050	18,750	15,202
	수프라막스	13,625	▲ 500	13,250	18,500	16,737	12,438	18,625	15,131
	핸디	11,750	- -	12,000	15,250	14,064	9,750	15,500	12,512
건화물선 시장(FFA)									
		8월물		3분기물		2026년물		2027년물	
		7월 1주	전주 대비	7월 1주	전주 대비	7월 1주	전주 대비	7월 1주	전주 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17,379	▼ -1,005	19,812	▲ 1,400	17,984	▲ 228	18,789	▲ 105
	파나마스(5TC)	12,495	▲ 134	12,073	▼ -38	11,352	▲ 101	11,430	▲ 47
	수프라막스(10TC)	11,796	▲ 754	11,438	▲ 276	10,495	▲ 136	10,760	▲ 174
	핸디(7TC)	11,940	▲ 355	11,418	▼ -148	10,336	▲ 182	10,383	▲ 94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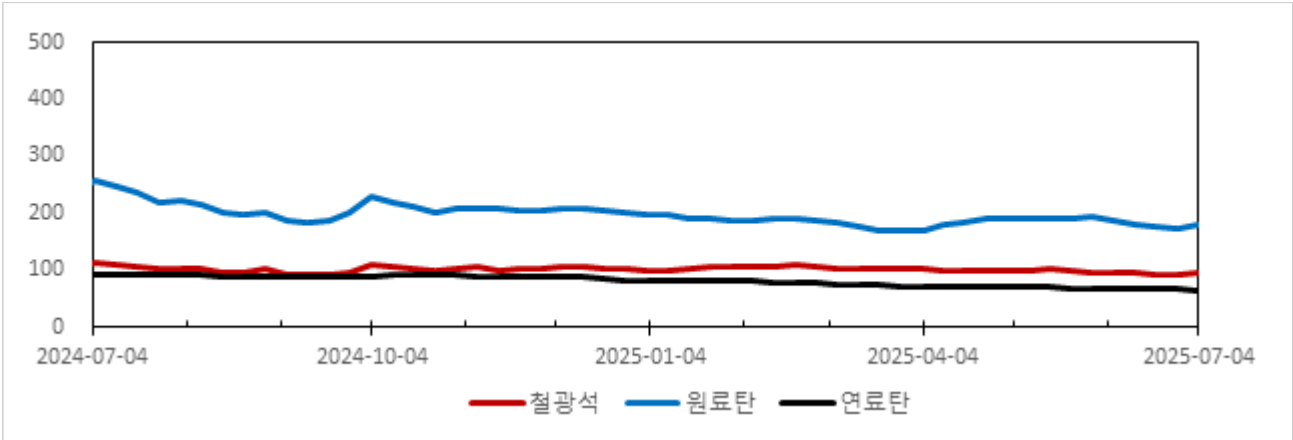
구분	2025년		전주 대비 차이				2024년			
	7월 1주	전주 대비					7월 1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93.8	92.6	▲	1.2	1.3	%	111.6	109.7	91.2	142.6
원료탄	178.5	174.1	▲	4.4	2.5	%	257.0	242.5	183.6	326.1
연료탄	64.9	65.9	▼	-0.9	-1.4	%	90.0	91.0	82.5	99.3
대두	381.7	380.8	▲	1.0	0.3	%	411.1	405.9	344.9	469.2
옥수수	167.4	163.2	▲	4.2	2.6	%	159.0	167.4	145.2	181.8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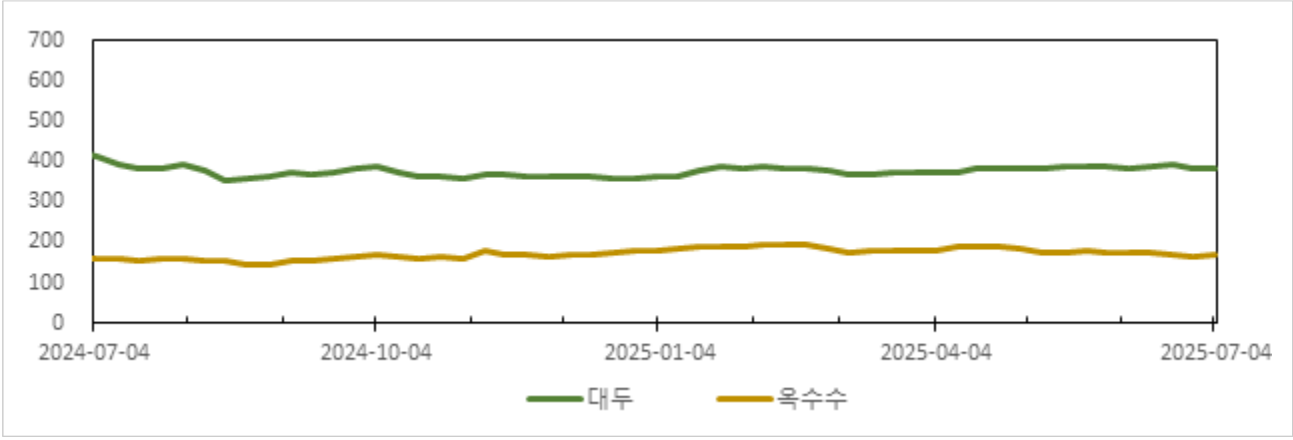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곡물 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3 케이프선-동향분석

I 케이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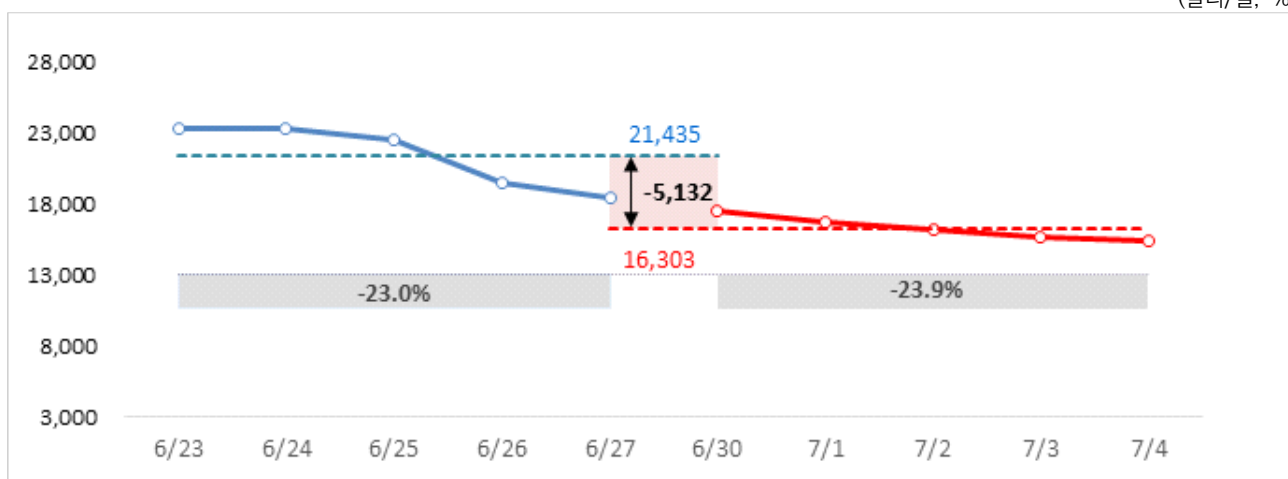
(운임) 케이프선 운임이 전주(7월 1주)대비 23.9% 하락한 16,303달러/일을 기록함

(동향) 호주 동부에 '폭탄 저기압(Bomb Cyclone)'영향으로 석탄 수출 일정 차질

- 호주 동부 지역에 '폭탄 저기압'(발생 24시간 이내에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폭우와 강풍 등 심각한 기상 상황을 유발하는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뉴캐슬항(Newcastle Port)과 캄블라항(Kembla port)에서 석탄 선적 및 집안 일정 등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다만 호주 석탄 수출의 55%를 담당하는 퀸즐랜드의 석탄 항만은 정상 운영 중임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7월 1주	6월 4주	전주대비차이	
BCI		1,966	2,585	▼ -619	-23.9%
스팟운임(5TC)		16,303	21,435	▼ -5,132	-23.9%
용선료	6개월	23,275	23,750	▼ -475	-2.0%
	1년	21,700	18,750	▲ 2,950	15.7%
	5년	18,950	19,000	▼ -50	-0.3%
FFA	6월물	17,379	18,385	▼ -1,005	-5.5%
	3분기물	19,812	18,412	▲ 1,400	7.6%
	'26년	17,984	17,757	▲ 228	1.3%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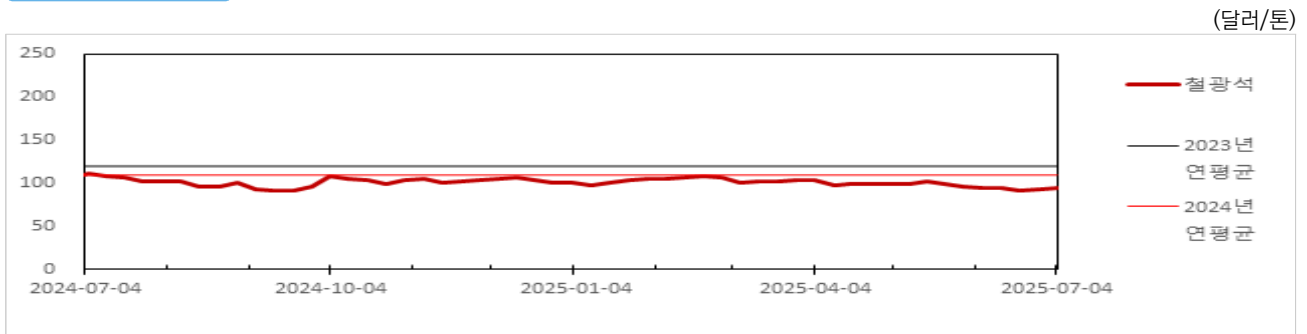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철광석 가격 : 전주 대비 1.3% 상승한 93.8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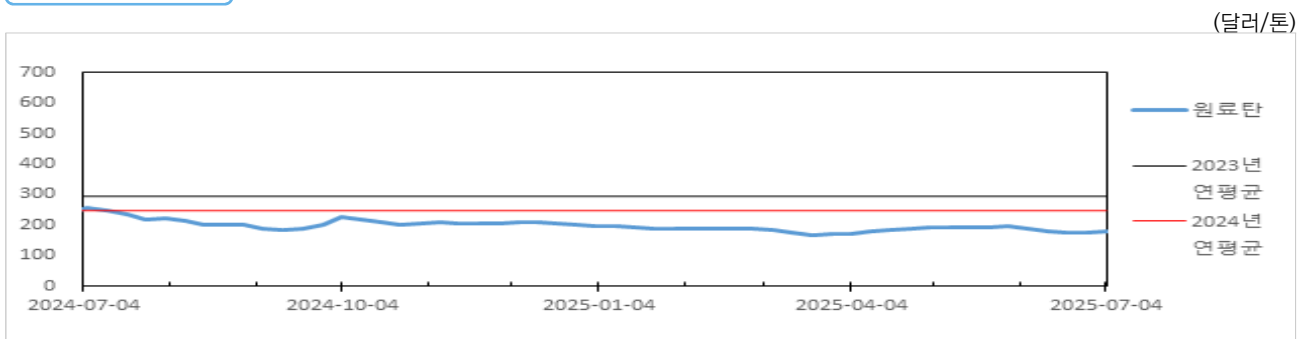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원료탄 가격 : 전주 대비 2.5% 상승한 178.5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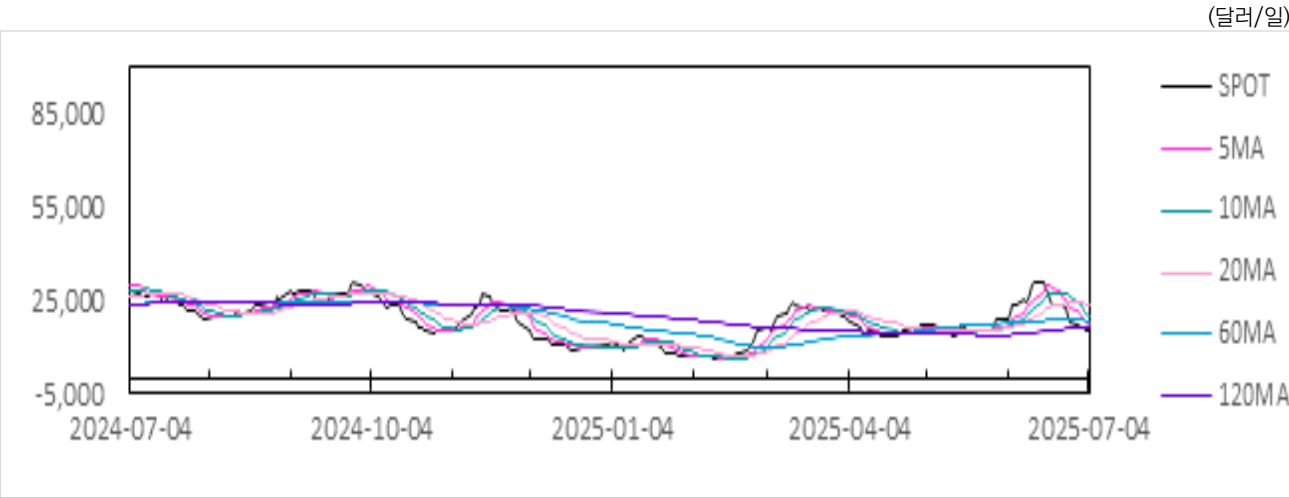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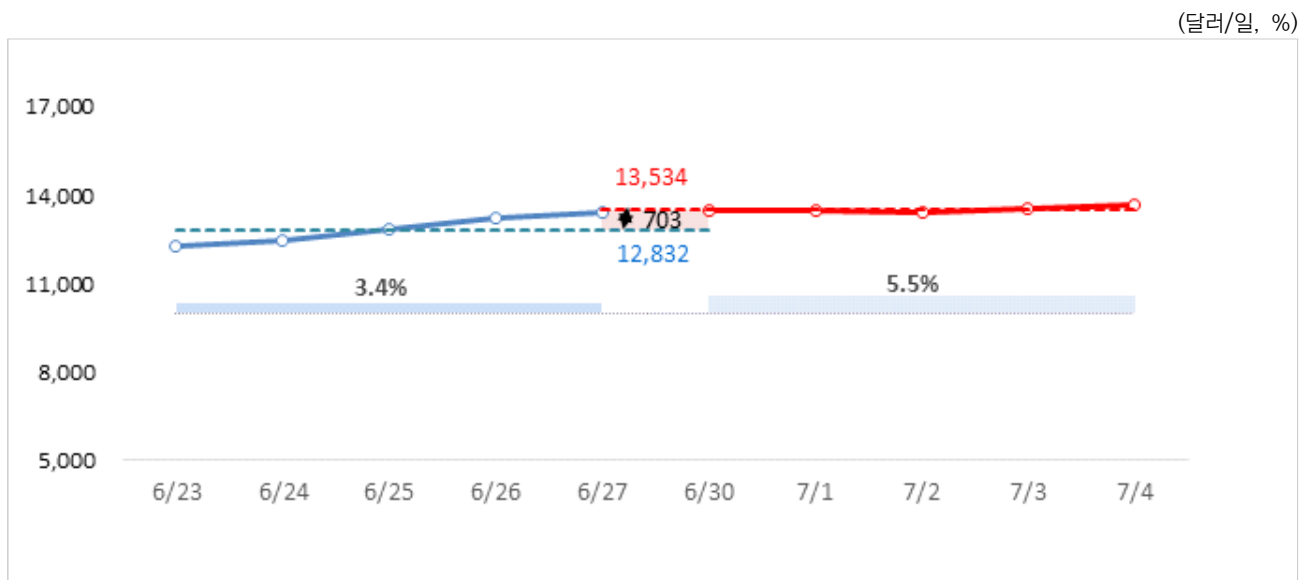
■ 파나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5.5% 상승한 13,534달러/일 기록

(동향) 러시아, 밀 수출관세 인하

-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7월 9일부터 밀 수출관세를 0으로 인하할 계획임. 러시아는 과거 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곡물 수출관세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 밀을 우선 공급하며 수출을 관리해 왔음
- 한편 러시아 농무부는 지난해 12월 밀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 관세를 인상했으며 2025년 2월부터 6월 말까지는 밀 등 곡물에 대해 수출 할당제를 운영한 바 있음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7월 1주	6월 4주	전주대비차이		
BPI		1,504	1,426	▲	78	5.5 %
스팟운임(5TC)		13,534	12,832	▲	703	5.5 %
용선료	6개월	13,875	13,575	▲	300	2.2 %
	1년	13,500	13,225	▲	275	2.1 %
	5년	12,250	12,050	▲	200	1.7 %
FFA	6월물	12,495	12,361	▲	134	1.1 %
	3분기물	12,073	12,112	▼	-38	-0.3 %
	'26년	11,352	11,250	▲	101	0.9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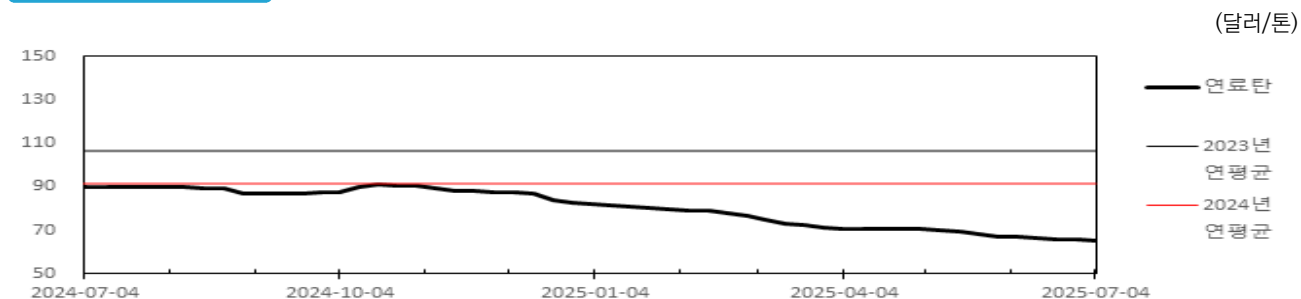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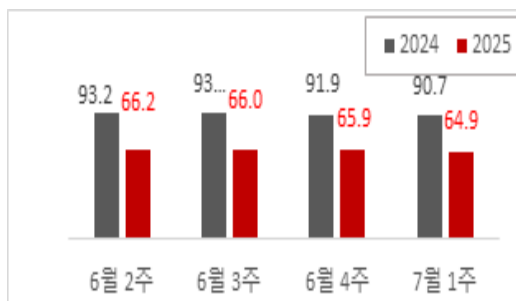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전주 대비 1.4% 하락한 64.9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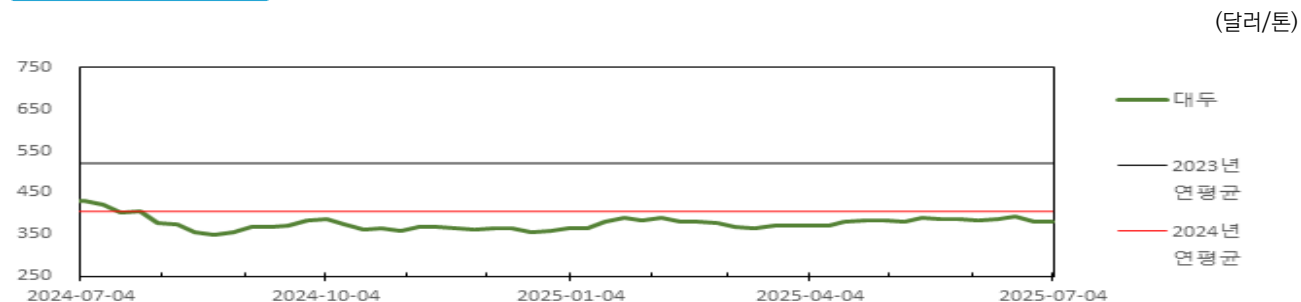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6월 2주	66.2	▼	-0.7	-1.1 %
6월 3주	66.0	▼	-0.2	-0.2 %
6월 4주	65.9	▼	-0.2	-0.2 %
7월 1주	64.9	▼	-0.9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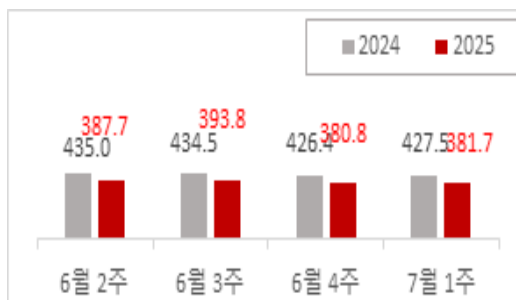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대두 가격 : 전주 대비 0.3% 상승한 381.7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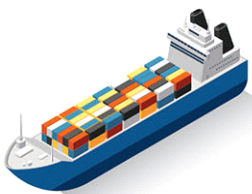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6월 2주	387.7	▲	3.5	0.9 %
6월 3주	393.8	▲	6.0	1.6 %
6월 4주	380.8	▼	-13.0	-3.3 %
7월 1주	381.7	▲	1.0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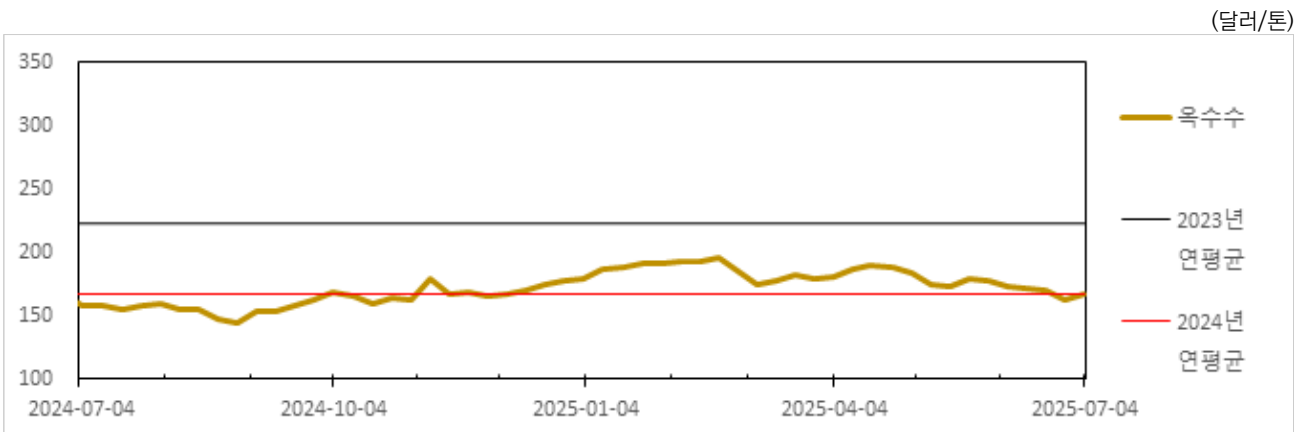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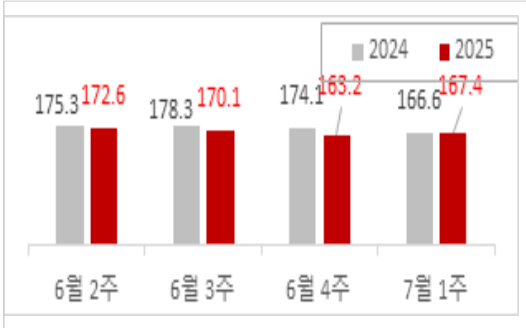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옥수수 가격 : 전주 대비 2.6% 상승한 167.4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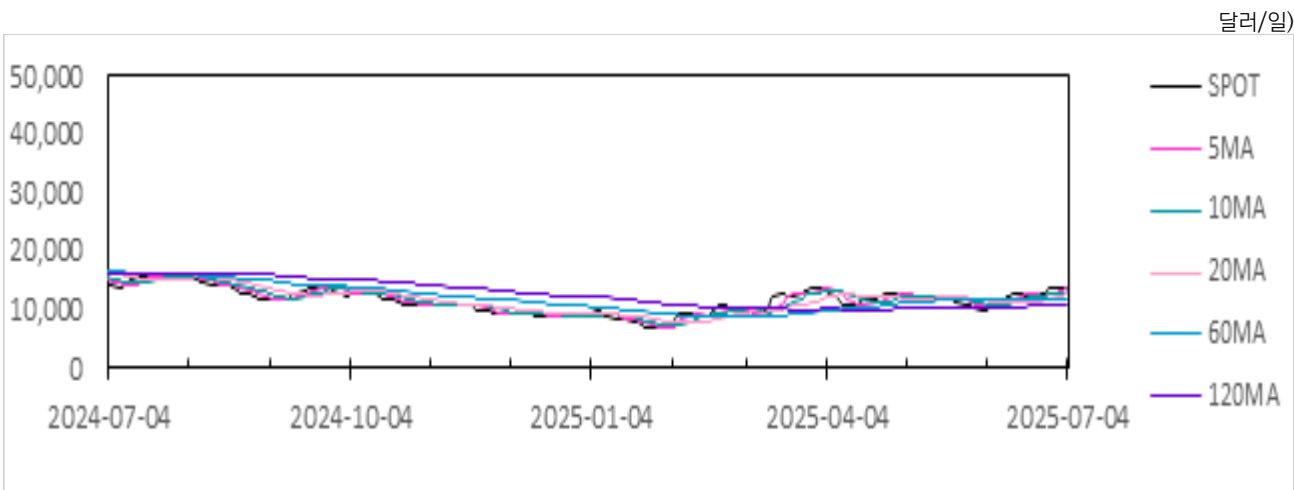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달러/톤)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6월 2주	172.6	▼ -0.4	-0.2	%
6월 3주	170.1	▼ -2.5	-1.4	%
6월 4주	163.2	▼ -6.9	-4.1	%
7월 1주	167.4	▲ 4.2	2.6	%

3 파나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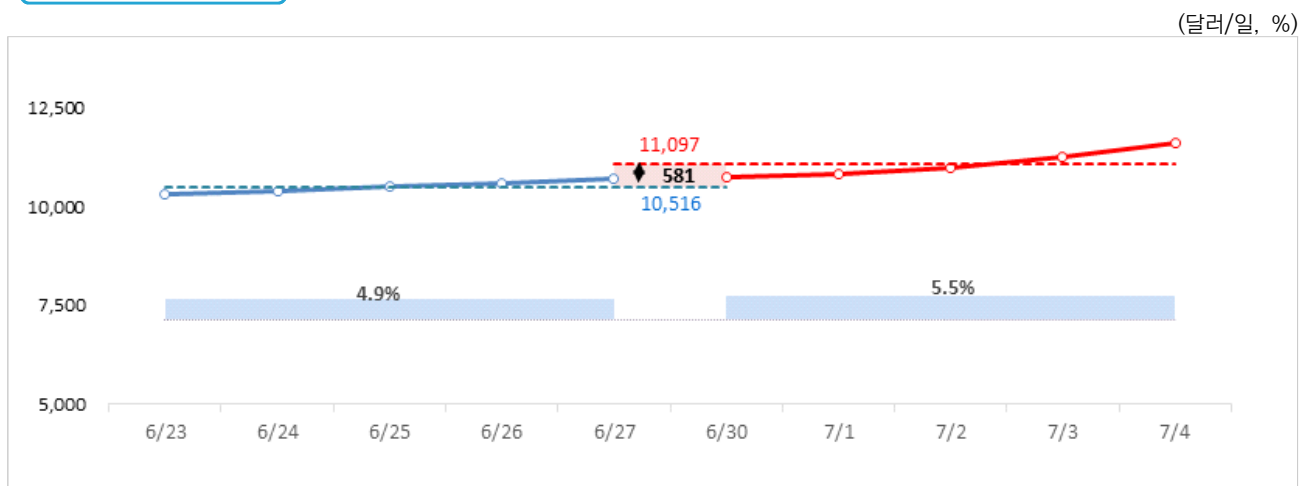
I 수프라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5.5% 상승한 11,097달러/일 기록

(동향) 인도네시아 광산업체의 생산쿼터(RKAB) 유효기간 단축 검토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산업체의 생산쿼터(RKAB)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최근 석탄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주요 수입국인 중국, 인도 등의 자국 내 생산 증가로 수입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석탄 수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3년 단위의 RKAB 승인 방식은 석탄 생산량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1년 단위의 승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석탄의 수급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7월 1주	6월 4주	전주대비차이	
BSI		1,039	993	▲ 46	4.6 %
스팟운임(10TC)		11,097	10,516	▲ 581	5.5 %
용선료	6개월	13,875	13,375	▲ 500	3.7 %
	1년	13,625	13,125	▲ 500	3.8 %
	5년	14,000	14,000	-	- %
FFA	6월물	11,796	11,043	▲ 754	6.8 %
	3분기물	11,438	11,163	▲ 276	2.5 %
	'26년	10,495	10,359	▲ 136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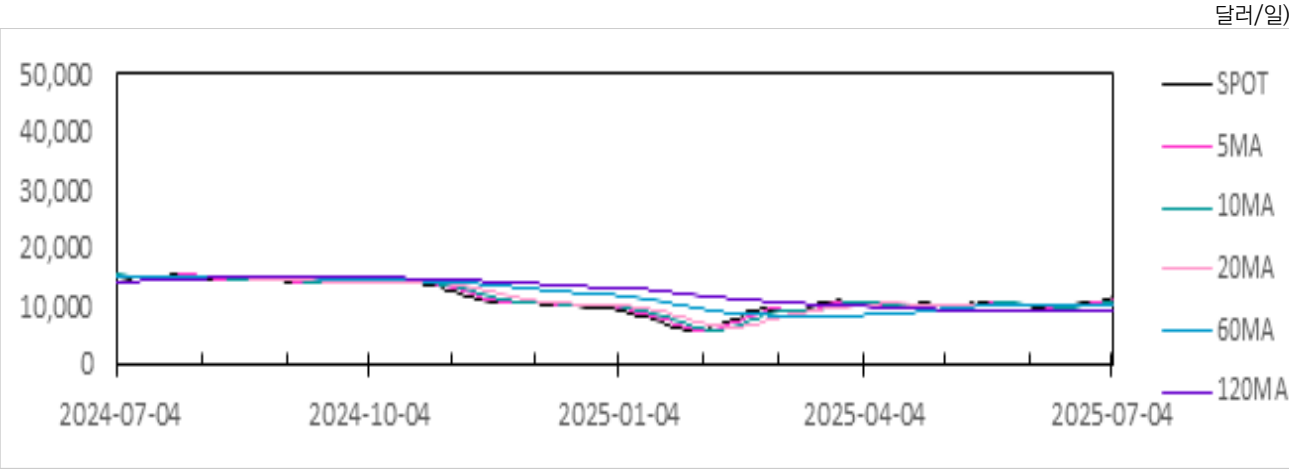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전주 대비 98p 하락한 1,763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북미 항로 중심의 운임 약세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더 큰 폭의 하락을 기록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북미 서비스의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세가 전주에 이어 운임지수 전반의 하락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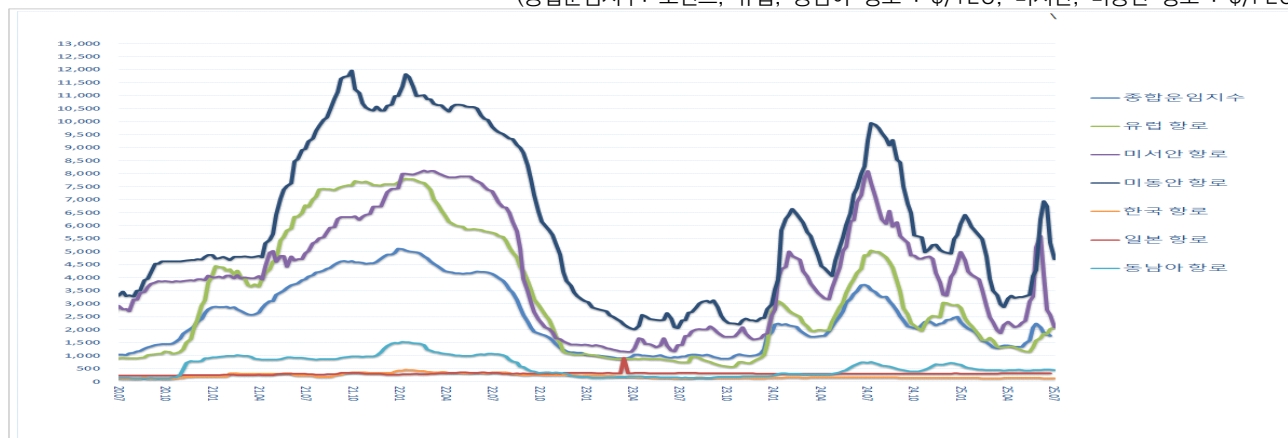
(현황) 북미 항로는 공급 과잉으로 약세 유지, 유럽 항로는 항만 혼잡 심화로 운임 강세 지속

○ 아시아-북미 항로는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형 선사들의 신규 서비스 개설이 이어지며 글로벌 대형 선사들의 임시결항 및 일괄운임인상(GRI) 등으로 인한 반등 여력은 제한적일 전망

○ 아시아-유럽 항로는 북유럽 주요 항만의 혼잡 심화로 야드 적치율이 80%를 상회하며 체선이 증가하고 있고, 선사들의 서비스 스케줄 조정으로 운임 강세가 유지되고 있음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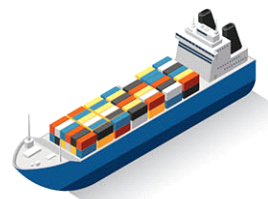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7월 1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운임	종합운임지수 SCFI	1,763	-98	1,293	2,505	1,704	1,731	3,734	2,506
	유럽항로	2,101	71	1,154	2,851	1,658	1,943	5,051	3,132
	미서안항로	2,089	-489	1,872	5,606	3,126	2,775	8,103	4,987
	미동안항로	4,124	-593	2,866	6,939	4,487	3,931	9,945	6,463
	한국항로	136	0	136	148	140	138	172	153
	일본항로	321	0	308	327	316	297	316	303
	동남아항로	453	-3	430	655	464	259	753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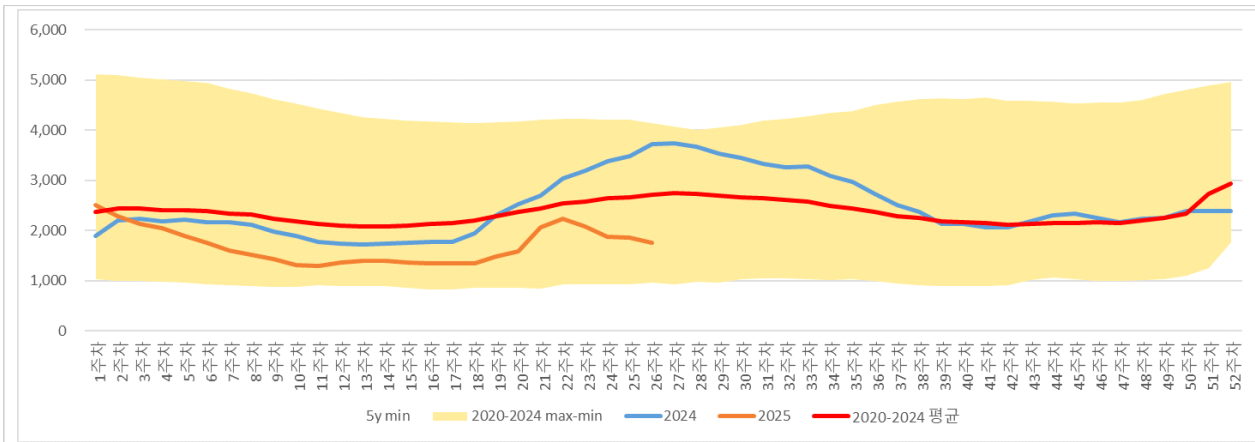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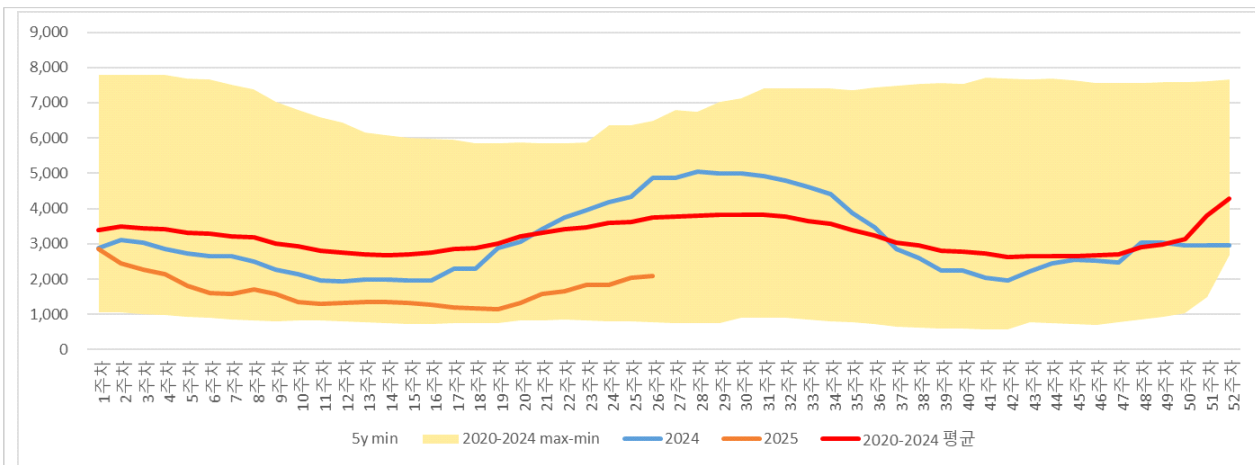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7월 2주('25.7.7~'25.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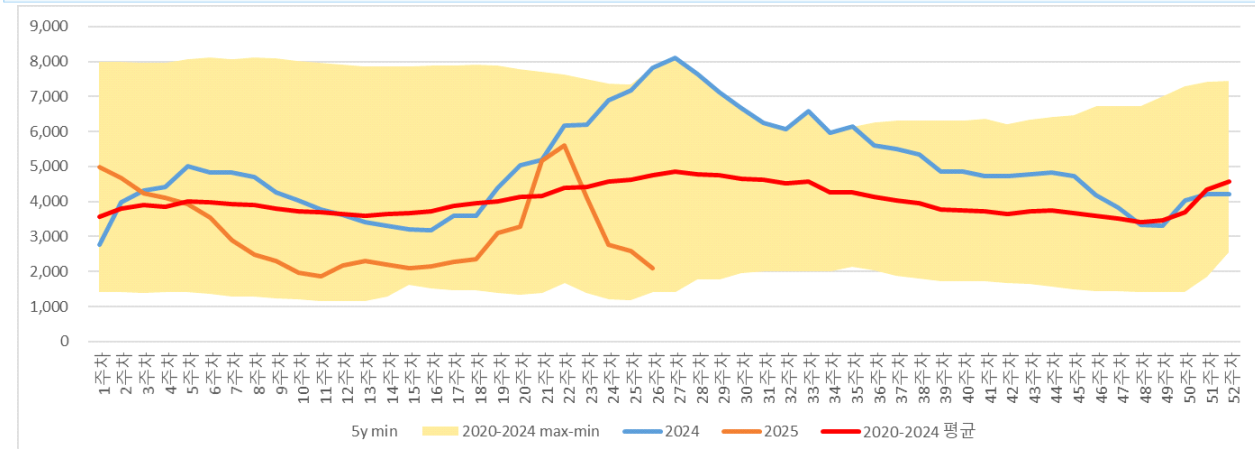
SCFI 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금주 유조선 WS는 전주 대비 6.6p 하락한 47.4를 기록함

(운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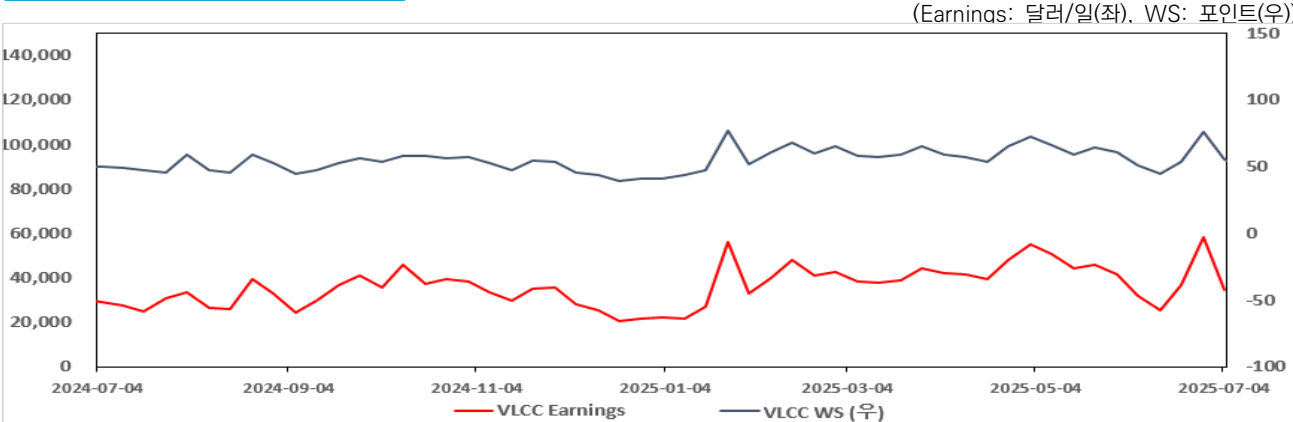
(달러/톤)

구분	7월 1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47.4	▼	6.6	12.2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30.5	▼	2.5	7.6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47.0	▼	5.5	10.1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51.0	▼	2.5	4.7 %

(동향)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이후 VLCC 운임 지속 하락, 단기 반등요인 부재로 보험세 전망

- VLCC 운임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이 진정된 이후 가용선대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화주들의 지속적인 관망세로 인해 대부분 항로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단기간 내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여 당분간 보험권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OPEC+는 8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4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세계 생산량의 약 0.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규모임. 이번 증산은 트럼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OPEC+는 세계 경제 전망과 시장의 펀더멘탈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힘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7월 1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유조선 시장(현물)									
중동-중국	운임지수	47	-7	43	82	59	40	80	57
항로(TD3C)	평균 수익	27,579	-25,245	20,781	75,941	40,020	17,598	74,778	20,034
VLCC	1년 용선료	42,750	-3,000	35,250	46,500	41,176	37,250	48,500	45,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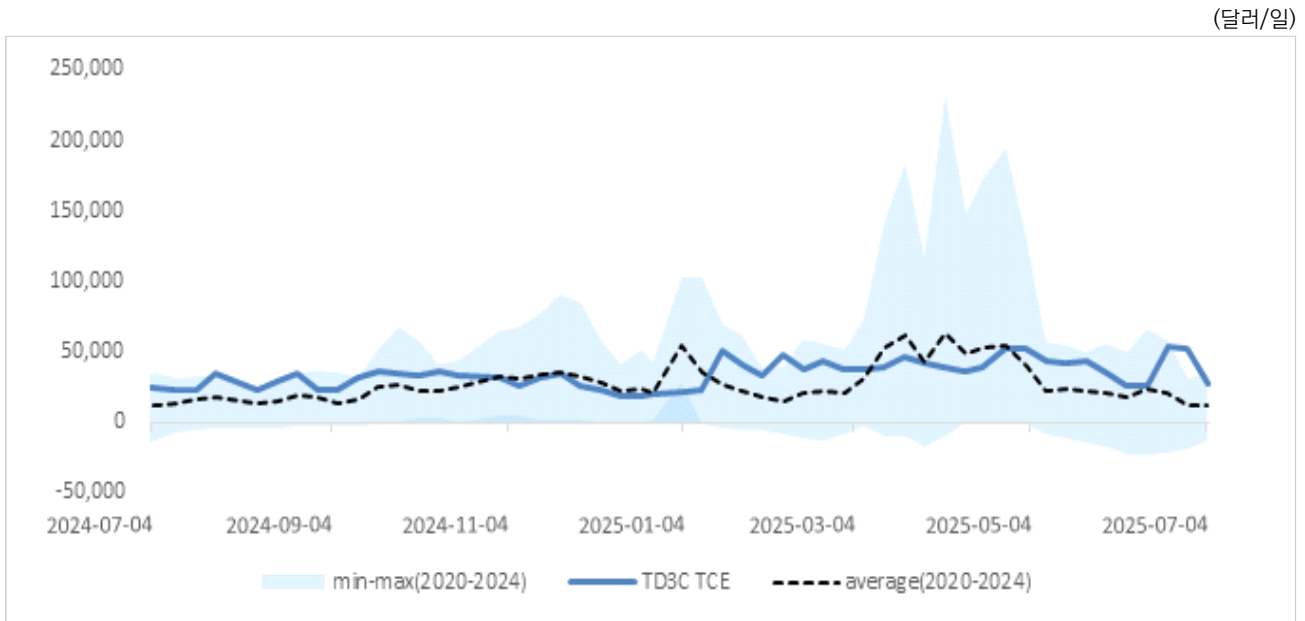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2 유조선-기술분석

■ 전주 대비 하락했으며, 최근 가파른 등락으로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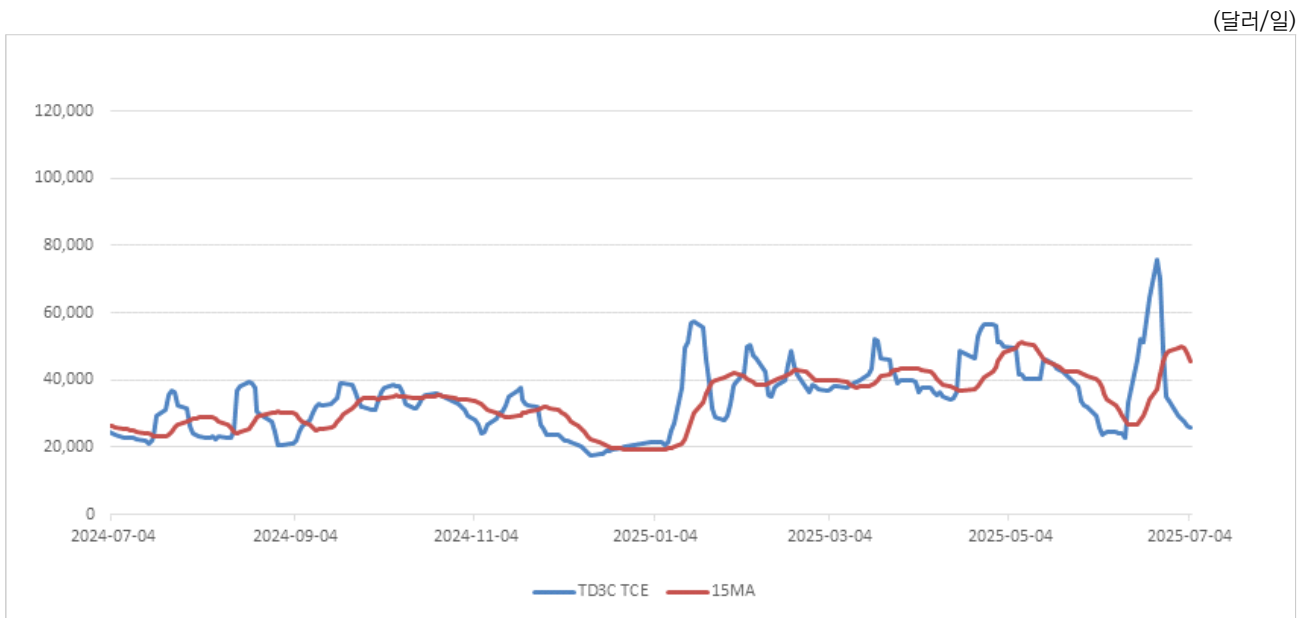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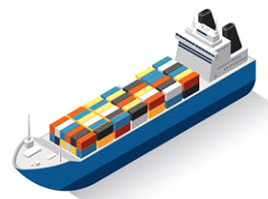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최근 급등 이후 하락 전환하면서 하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 건화물 중고선가 지수는 32.1p로 전주 대비 0.1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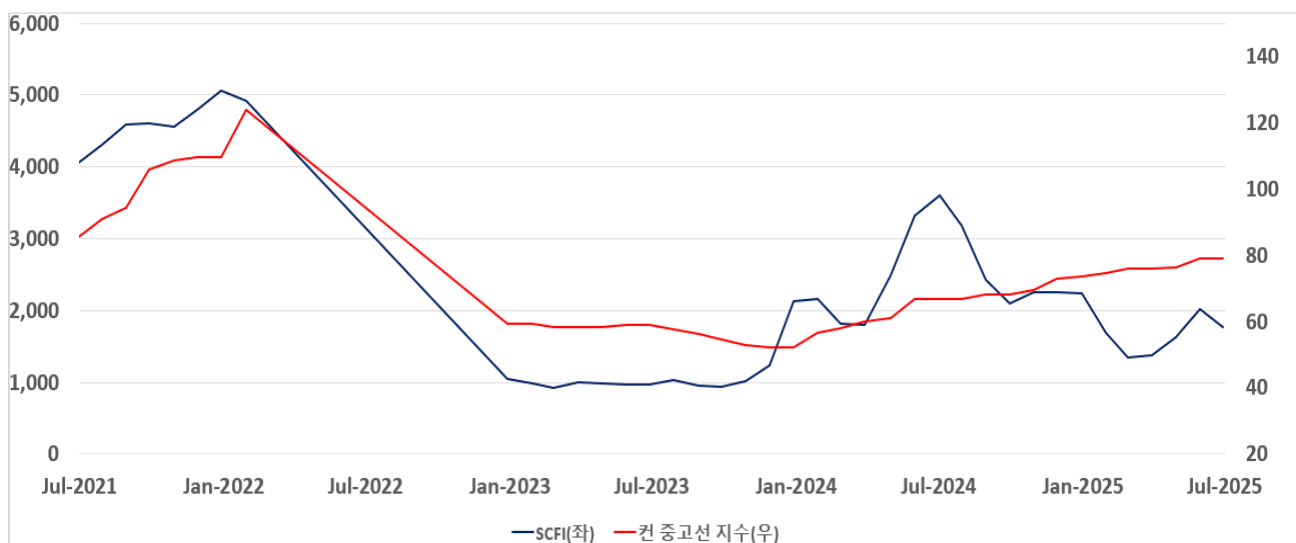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10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 컨테이너 중고선가 지수는 79.1p로 전월과 동일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25.07.01~'25.07.07)

■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중고선 8건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Mona Lisa	2019	63,453	DWT	2025-07-04	28.50	COFCO Int'l Sg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PGS Apollo	2010	107	LOA	2025-07-03		PGS	Clients of Sanco
TankChem	Grand Ace 7	2007	46,140	DWT	2025-07-01	15.00	Pan Ocean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Hansa Horneburg	2007	1,732	TEU	2025-07-01	19.50	Leonhardt & Blumberg	Clients of Global Feeder Shpg
TankChem	San Fernando	2005	48,315	DWT	2025-07-01	12.00	Mitsui OSK Lines	Undisclosed interests
Bulk	Four Butterfly*	2011	34,423	DWT	2025-07-01	30.00	Four Handy Ltd.	European interests
Bulk	Four Rigoletto*	2011	34,438	DWT	2025-07-01		Four Handy Ltd.	European interests
Bulk	Four Turandot*	2012	34,428	DWT	2025-07-01		Four Handy Ltd.	European interests



6. 주요 해운지표

(2025.07.07.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6월 평균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	-	-
유조선(5년)	VLCC	117	0	116	112	117	114	106	116	114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36	0	36	33	36	35	15	31	2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	-	-	-	-	-	35	37	36
유조선	VLCC	126	0	126	125	129	126	128	131	129
컨테이너선	Sub-Panamax	45	0	45	44	45	44	41	44	42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34	-2	449	401	493	443	407	522	471
	Singapore	422	-16	459	411	514	465	439	536	485
	Korea	464	-10	486	452	530	489	475	563	515
	Hong Kong	450	-20	479	444	522	483	456	568	500
VLSFO	Rotterdam	510	20	499	440	553	500	502	615	555
	Singapore	529	5	535	484	604	535	548	657	610
	Hong Kong	538	1	543	493	604	544	568	680	620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			-		
연료탄 (\$/Tonne)	국제價				-			-		
	중국産				-			-		
원료탄 (\$/Tonne)	호주産	-	-	-	-	-	-	-	-	-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	-	922	536	1,078	1,018	952	1,277	1,100
	밀(국제)	-	-	547	515	618	550	524	700	578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3월	4월	5월	2024년 합계	2023년 합계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ASEAN	수출	10,251	9,420	10,006	114,011	109,123	124,889	108,826		
	수입	6,648	6,752	6,209	78,828	78,033	82,529	67,705		
NAFTA	수출	12,955	12,538	12,080	151,717	136,353	130,259	113,907		
	수입	6,616	7,261	8,018	86,499	85,097	98,901	87,472		
EU	수출	6,764	7,268	6,655	74,722	74,147	74,413	69,576		
	수입	6,509	5,566	5,583	69,321	73,011	73,966	71,740		
BRICs	수출	12,353	13,669	12,880	162,194	154,128	187,108	194,151		
	수입	13,131	14,540	13,146	163,110	168,691	189,991	173,284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